

### 중앙 시평



柳錫春  
연세대 교수  
사회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1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공항에 발을 딛고 환호하는 인파에 손을 흔드는 모습을 접할 때만 해도 우리는 2001년이 이렇게 엉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고, 정부는 이에 힘입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조기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었다.

#### 상처만 남긴 '이른바 개혁'

구조조정의 아픔은 벤처의 약진으로 보상될 수 있을 거라며 우리 모두 새로운 희망에 들떠 있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에 노벨 평화상이라는 역사적 선물을 보내며 축하했다.

이러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2000년 내내 국민을 헛갈리게 한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1년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이른바 개혁'에 착수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정부는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주요 신문에 전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몇몇 대주주의 구속으로까지 치달은 소위 언론개혁은 그러나 결국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며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 언론 보도의 질과 양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교육개혁이 추진됐다지만 교육의 질과 양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믿는 국민이 존재하거나 하는가. 규제완화가 추진됐다지만 규제의 폭과 깊이가 과거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있을까. 의료개혁이 추진됐다지만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정치개혁이 추진됐다지만 정치서비스의 양과 질이 과거와 비교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 잘못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봐야 할 때다. 왜 햇볕정책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금강산 관광선은 2001년 지금 동해항에 정박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DJ의 집권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있는가. 왜 재벌개혁은 4대재벌의 영향력과 비중을 높이기만 하는가. 왜 국가의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더욱 강성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실제로 개혁은 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을지도 모른다. 또한 개혁의 총론과 각론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잿빛의 현실과 장밋빛의 이상이 만들어 내는 간격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을지도 모른다. 개혁의 추진세력과 개혁의 저항세력간에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갈등을 손쉽게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오만했는지도 모른다. 200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의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에게 사업 설명을 하며 사진까지 찍은 벤처기업인이 결국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 만들어 낸 가장 '엽기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말하는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라고 치부하는 것이 마음 편할 뿐이다.

#### 목적지·속도 등 생각해야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말이지 모두 정신없이 달려왔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달리는 속도는 적절한지, 휴식을 취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생각해 볼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의 연속에 우리를 맡기고 휩쓸려 다녔을 뿐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차분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갈등이 압축돼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성찰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다. 성찰의 기회를 소중히 해야 하는 일은 비단 정치권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없다.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도 끊임없는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성찰의 시간